

# 석유화학, 수출겨냥 풀가동 “화근”

일본, 이익창출 못하는 자산증가가 원인 ... 비효율적인 합작은 부담

일본 화학기업의 경영체질이 악화된 것은 거품경제인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를 거치면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1980년대 말 경기과열 상태에서 NCC(Naphtha Cracker Center)를 증설한 것에서 인식할 수 있듯이 국제경쟁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사업을 계속 확대했으며 사업구조도 변혁하려 하지 않았다.

당시 일부에서 과잉설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아시아의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형태, 즉 석유화학제품의 아시아 수출을 전제로 풀가동을 유지하는 체제가 구축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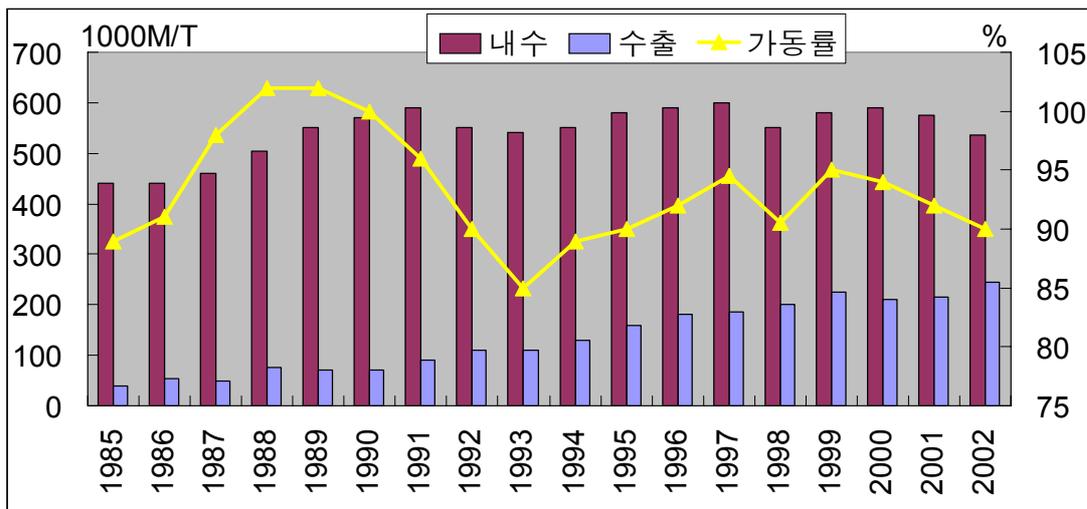
한때 아시아의 외환위기 때문에 아시아 수요신장이 둔화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1990년대 후반까지 동남아시아,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중국수요가 확대돼 일본의 에틸렌(Ethylene) 크래커는 수출을 중심으로 높은 가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.

1980년대 및 1990년대에는 수출확대 및 해외거점의 점유율 향상을 목표로 한 화학제품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거품경제 시기의 NCC를 비롯한 SM(Styrene Monomer), PS(Polystyrene), ABS(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) 등 Styrene계 사업, 폴리올레핀계 사업, 섬유 및 필름 등 PET(Polyethylene Terephthalate) 계 사업 등이다.

아시아 수출을 목표로 한 일본설비의 증설을 비롯해 해외에서는 비효율적인 합작이나 기존거점의 무의미한 증설이 이루어진 것이다.

그러나 최근에는 중동지역이나 중국에서 에틸렌 크래커가 대폭적으로 증설되고 있어 수출 없이는 풀가동을 유지할 수 없는 일본의 에틸렌 크래커는 분명 과잉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.

일본의 에틸렌 국내수요·수출·가동률



합성수지나 합성섬유 등 유도제품도 세계시장 점유율을 이미 상실했고, 소재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비약적인 기술발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떠안고 있다. 1998년경까지 투자해온 사업이 경쟁력을 잃고 ROI가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.

<화학저널 2004/08/30>